

배포일시	2019. 6. 14.(금) 09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	과장 이 용 섭 사무관 김 병 철
		전화번호	02-2181-0372 02-2181-0373

**김종석 기상청장,
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 당선**
 - 2023년까지 세계기상기구 주요 정책 결정 등 역할 수행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6월 13일(목) 18시(한국시각 6월 14일 이시) ‘제18차 세계기상총회’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집행이사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지역 1위로 당선되었으며, 2023년 제19차 세계기상총회 때까지 집행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.
- 특히 이번 아시아지역에서 집행이사 1위 당선은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상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공헌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된다.
 - 기상청은 그동안 각국의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, 외교부(주 제네바 대표부)와 함께 세계기상기구(WMO) 회원국 정부에게 우리 후보의 역량과 비전을 홍보해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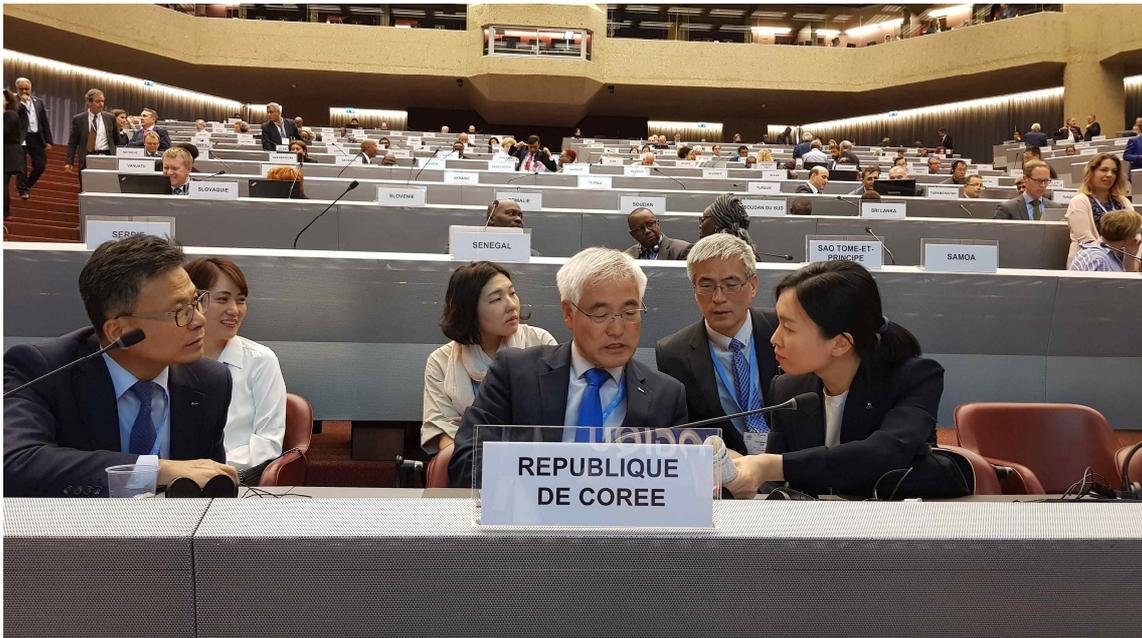
□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회는 각종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집행기구로,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.

○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위원으로는 △대한민국 △일본 △중국 △인도 △이란 △아랍에미리트(의장) 총 6개국이 선출되었으며, 앞으로 4년간 지역대표로 활동하게 된다.

○ 우리나라는 1956년 세계기상기구(WMO)에 가입하여 2007년 첫 집행이사직 당선 이후, 계속해서 집행이사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직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상 분야 주요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기상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대표단 사진



| 세계기상총회(6.3~14., 스위스 제네바) 참석중인 기상청대표단 |